

# 전후 고도성장과 재일조선인 주체 구축의 가공성\*

—시라사카 요시오 『타인의 피』를 중심으로—

임 상 민\*\*

(e-mail : y3k76@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구명운동과 주체 구축의 (불)가능성 |
| 2. 이진우 사건과 재일조선인의 자기 표상 | 5. 나가며                 |
| 3. 사건의 재구성과 일본문학의 타자 표상 |                        |

キーワード：李珍宇事件(Incident by Lee, Jin-woo), 在日朝鮮人(Japanese korean), 犯罪(crimes), 救命運動(Campaign to save people's life), 主体 構築(Building main agents), 加工性(Machinability)

##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전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재일조선인은 어떻게 서사되어 왔는지, 즉 재일조선인의 주체 구축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쇼와 30년대(1955년부터 1965년까지)는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재구축되기 시작하는 시기였을 뿐 아니라, 재일조선인을 다룬 작품이나 영화가 화제가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의 <쇼와 30년대> 담론에서는 당시의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문화적 화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을 가능케 한 한국전쟁에 의한 특수를 망각한 채 재일조선인에 관한 담론을 교묘하게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담론으로 동화시켜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4914839)

\*\* 동의대학교 일본어학과 조교수, 일본근현대문학

나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동화 이론에 의해, 또는 민족성의 강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배제당해 온 <보장받지 못한 주체>로서의 재일조선인을 언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진우 사건이란 1958년 9월 1일에 고마츠가와고등학교(小松川高校)의 야간에 재학 중이던 재일조선인 이진우가 같은 학교 주간에 다니는 여학생을 강간 살해한 죄로 체포된다. 이후, 본인의 자백으로 같은 해 4월 20일에도 식당 여종업원을 강간 살해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형이 확정되고, 전후 20명 째의 미성년자 사형수가 된 사건이다. 당시, 이진우 본인은 동 사건의 범행에 대해서 마치 ‘꿈’과 같았다고 진술하면서 ‘동기 없는 살인’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동 사건은 1968년의 김희로 사건과 함께 전후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재일조선인에 의한 범죄 사건이다.

본고에서 고찰을 시도하는 작가 시라사카 요시오(白坂依志夫, 1932년—2015년)는 자작 시나리오 『타인의 피(他人の血)』(『시나리오』1962년 4월호)의 집필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작년 예술제 때에 규슈아사히방송의 의뢰를 받아서 집필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새롭게 시나리오의 형식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캐스팅과 촬영 사전 답사를 마친 단계에서, 갑자기 워선의 개입으로 제작이 중지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꽤나 신경을 쓰며 썼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이후, 잠시 물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에 겐자부로 씨가 같은 문제를 소재로 해서 소설로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발표하게 되면 마치 따라서 쓴 것이라고 오해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 활자화해 두기로 했습니다.<sup>1)</sup>

먼저, 시나리오 『타인의 피』의 집필 과정을 살펴보면, 동 작품은 최초 텔레비전 드라마를 목적으로 집필되었지만, 회사 측의 결정으로 갑자기 제작이 중단된다. 하지만, 오에 겐자부리가 동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소설을 집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시나리오 형식으로 수정해서 투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시라사카 요시오는 결과적으로 동 시나리오가 이진우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오에 겐자부리가 동 사건을 소재로 소설

1) 白坂依志夫(1962.4)「前口上」『シナリオ』18巻4号, 日本作家シナリオ協会, p.134.

화하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발언과는 반대로 “본 드라마의 초고는 작년 한창 더운 여름날에 집필했는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자료 조사를 도와준 다이에(大映) 기획부의 이시마츠 요시히로(石松愛弘) 씨, 재일한국인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육성회 콩쿠르의 가작 수상자 김성유점(金誠有点) 씨, 재판소까지 안내를 맡아준 시나리오 작가 시모이이자카 기쿠마(下飯坂菊馬) 씨, 그리고 그 아버지이자 고마즈가와 사건(이진우 소년과 본 드라마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을 담당할 고등법원의 시모이이자카 재판관, 그 밖도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134쪽)라고 말하고 있듯이, 재일한국인은 물론 이진우 사건을 담당할 재판관을 직접 만난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건과 시나리오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시라사카 요시오는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은 같은 시기에 개봉된 영화 『과괴』(이치카와 곤 감독, 1962년 4월 6일 개봉)에 등장하는 부락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집필했다고 말하고 있듯이, 재일조선인의 문제보다는 부락민의 문제에 방점을 찍고 시나리오를 집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나리오 『타인의 피』와 실제 사건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본인 작가의 재일조선인 표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동 사건을 모델로 한 김석범의 『사제 없는 제사』를 통해 재일조선인 작가의 자기 표상과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1960년대 전후의 일본 문단에서 재일조선인의 범죄가 어떻게 서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진우 사건과 재일조선인의 자기 표상

1962년 11월 26일에 이진우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전후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일본인의 타자 인식 측면에서 다양한 소설 및 영화 등이 제작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재일조선인 작가에 의한 작품은 1981년에 발표된 김석범의 『사제 없는 제사(祭司なき祭り)』가 유일하다는 점이다.<sup>2)</sup> 하지만, 김석범의 동

2) 이진우사건을 다룬 일본의 소설, 영화, 드라마는 다음과 같다. 深沢七郎 『絢爛の椅子』(「婦人口論」1959年11月号)、木下順二 『口笛が冬の空に』(「テレビドラマ」1961年5月)、白坂依志夫 『他人の血』(「シナリオ」1962年4月)、三好徹 『海の沈黙』(三一書房、1962年5月)、大江健三郎 『叫び声』(「群像」1962年11月)、朴寿南 『罪と死と愛と』(三一書房、1963年5月)、映画 『絞死刑』(大

소설에 대한 일본 문단의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예를 들면, 이리에 다카노리(入江隆則)는 사건 자체에 대한 ‘즉물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청년과 독자와의 거리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sup>3)</sup>고 지적하고 있고, 다테이시 하쿠(立石伯) 역시 “지나치게 사건 자체에 구속되어 있는 탓에 『까마귀의 죽음(鴉の死)』과 같이 충격적이지 않다”<sup>4)</sup>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평소 김석범 문학에 호의적인 오노 테이지로(小野悌次郎)조차도 “실제 사건의 잔영이 너무나도 크며 구성 역시도 실제 사건을 뛰어넘기에는 그다지 치밀하지 못하다”<sup>5)</sup>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김석범의 『사제 없는 제사』는 일본 문단으로부터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재일조선인의 당사자성에 주목하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동 사건은 당시 미디어를 통해서 ‘동기 없는 살인’으로 이슈화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진우의 다음과 같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의 머릿속에 언제나 맴도는 문제는 체험 그 자체가 마치 「꿈」과 같이 인식된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아마 나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와 함께 뒹굴어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현실 세계인가, 아니면 이것은 꿈이 아닐까 라고. …이러한 현상은 두 번째 사건 때에도 일어났다.<sup>6)</sup>

위의 진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진우 본인은 범행에 대해서 사건 직전까지는 극히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고, 범행을 일으킨 그 순간조차 마치 ‘꿈’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김석범의 작품 속에도 ‘꿈’은 작품 해석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인공 김봉남

鳥渚、1968年2月3日公開）、深尾道典「いつでもないいつかどこでもないどこか」（『曠野の歌—深尾道典作品集』1970年10月、大光社）、朴寿南『李珍宇全書簡集』（1979年2月、新人物往来社）、韓国テレビドラマ『なぜ』（KBS、1980年12月7日放映）

3) 入江隆則(1981.2) 「文芸時評」 『すばる』 3卷2号, 集英社, p.327.

4) 立石伯(1981.9) 「書評 事実と虚構」 『群像』 9号, 講談社, p.287.

5) 小野悌次郎(1998) 『存在の原基 金石範文学』 新幹社, p.99.

6) 李珍宇·朴壽南(1962.10) 「獄窓に祖国の瞳つを見つめて」 『婦人口論』 10号, 婦人公論新社, p.174.

(金朋南)은 소설 첫 부분에서 가출한지 3개월 만에 돌아온 동경의 집에 대해서 “마을에 대한 과거 기억의 재현인지, 꿈과 현실을 가르는 한 장의 베일 또는 투명한 유리를 박아놓은 듯한 풍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꿈속이 아닌 꿈 바깥에서 현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알지 못하는 마을에 찾아온 듯한 느낌”이라고 말한다. 작품 속 주인공 김봉남은 현실 세계에서 리얼리티를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사고의 방향성이 항상 ‘꿈속’에서 ‘꿈 바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인이라는 인간이 살고 있는 쓰레기장은 요새 속 부락. 어릴 적 꿈나라 숲속 부락, 숲으로 덮인 요새의 부락. (중략)언젠가 요새의 밖으로 나가자. 숲속에서 벌벌 떨지 말고 밖으로, 요새 밖으로 탈출하자. 숲속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짐승이 날개를 펴고 새가 되어 요새를 넘어 밖으로 나갔다. 날아가면 그곳에는 항상 마을 외곽의 밭에 먹잇감이 있었고, 그것은 다리가 네 개 달린 인간, 아니 벌거숭이 어린아이다. 새가 그것을 낚아채기 직전에 반드시 새를 노리는 녀석이 있고, 새가 된 짐승인 나는 마을 상공에서 맞아 떨어진다. 격추당해 1억의 빨간 주둥이를 벌린 지상으로 떨어진다. 새는 또 다시 숲 상공에서 비상한다. 비상하면 또 다시 격추당해 떨어진다. 새는 난다. 나는 요새를 초월하는 조선인 새이다.<sup>7)</sup>

위의 인용문은 매일같이 김봉남의 꿈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미지인데, 조선인 부락은 ‘요새’에 포위되어 있고, 안쪽은 ‘조선인’, 그리고 바깥쪽은 ‘일본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요새의 안쪽에 있는 주인공 ‘나’는 항상 공포에 벌벌 떨면서 자기 동일성과 아이덴티티 구축에 실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상대와의 관계성을 절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요새의 월경을 시도한다. 하지만, 요새 위의 경계를 뛰어넘으려는 그 순간, 외부의 ‘일본인’에게 격추당해 추락하고 마는 실패의 순환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주의할 점은 소설의 방향성은 이와 같은 꿈의 이분법을 원용하면서도 차별과 피차별이라는 도식을 보강하는 쪽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범죄와 책임문제를 말하는 이진우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7) 金石範(2005) 「祭司なき祭り」 『金石範作品集Ⅱ』平凡社, p.175.

연상시킨다.

예를 들면 어느 일본인은 나의 문제를 재일조선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그 책임은 일본인 본인들에게도 있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힘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당신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범행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까 라는 점과, 또 하나는 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이 때, 후자의 관점에서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sup>8)</sup>

이진우의 경우,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외적 환경론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본인은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신의 범행과 존재가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성에 회수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작품 속에서 김봉남은 편의상 사 용해온 수많은 일본어 이름들이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인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은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는 “조선”이 없다’라고 말 하고 있듯이, 본명과 통명 양쪽 모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적에 대해서도 리얼리티를 느끼지 못하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다름 아닌 ‘꿈속’을 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작품 속 김봉남의 아이덴티티는 마치 자신의 범행을 ‘꿈’과 같았다고 진술하는 이진우의 아이덴티티와 오버랩되는데, 주의할 점은 김석범은 왜 작품 속에서 차별과 피차별이라는 도식을 원용하면서 고발자로서의 재일조선인을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이와 같은 작품 속의 이중성은 동시대에 전개되었던 ‘제3의 길’ 논쟁에서 보이는 재일조선인 2세, 3세의 전형적인 감각이기도 했다.

1980년 전후에 전개된 ‘제3의 길’ 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일조선인 2세, 3세의 비율이 80%를 차지하기 시작한 당시, 재일조선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일본인의 두 논문이 단초가 되어 일어났다. 먼저, 논쟁의 발단은

8) 李珍宇(1979) 「一二月二八日 李珍宇(李)池田淳子へ」 『李珍宇全書簡集』新人物往來社, pp.348-349. 김희로는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나는 사람을 죽일 권리도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민족차별문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들은 일본인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나쁜 것을 해 왔는가”라고 범행의 동기를 일본 사회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외적 환경론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진우사건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당시 법무성 관료였던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徳, 1945년 조선 청주 출생)의 입국관리국 응모논문에 당선된 「금후 출입국 관리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今後の出入国管理行政のあり方について)」(우수논문 선정)라는 논문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재일조선의 삶의 방식을 1)귀국지향, 2)귀화지향, 3)한국과 조선 국적인 채 일본에 정주 지향으로 분류하고, 국적을 유지한 채 정주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재일조선인이 귀화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이이누마 지로(飯沼二郎)는 귀국지향은 조국의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귀화지향은 동화주의로 직결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카나카 히데노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 정주하는 것이 바르게 평가되어야 할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기본적으로는 ‘귀국사상’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국과 일체화되어 있는 재일조선인 1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sup>9)</sup>

예를 들면,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중은 동 논쟁에 대해서 “조국의 모습이라든지 전도(前途)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sup>10)</sup>라고 비판하고 있고, 작가 이회성 역시 “조선인 내부에서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붕괴시키는 『제3의 길』이 공공연히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sup>11)</sup>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1세대에 해당하는 김석범은 재일조선인의 세대교체에 따른 사고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세의 사고를 2세, 3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재일」의 위치는 자립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가령 차별·피차별의 도식 속에서 사고할 경우, 고발하는 쪽, 즉 차별을 받고 있는 쪽의 의식의 상태는 어떠한가. 피차별 쪽은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괴로움을 동반한 긴장감과 더불어, 상대를 고발할 수 있다는 자신의 위치에 쉽게 안주하기 때문에, 결국 공교롭게도 피차별이라는 위치 때문에 빠지기 쉬운 함정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셈이다. (중략)즉, 가해·피해의 도식이 “동정”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상태에서는 양쪽 모두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 (중략)타개해

9) 朴一(1992.10) 「『在日論』論争の成果と課題—在日朝鮮人二・三世の生き方をめぐって」 『ほるもん文化』3号, 新幹社, p.94.

10) 金時鐘(1980.4) 「座談会・第三の道をめぐって」 『朝鮮人』4号, 朝鮮人社, p.30.

11) 李恢成(1981) 『青春と祖国』 筑摩書房, p.50.

야 할 작업은 차별을 받고 있는 자로부터 시작된다.<sup>12)</sup>

재일조선인은 ‘자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김석범은 차별과 피차별의 도식 속에서 사고하는 한, 결국 재일조선인의 자기 구축은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차별과 피차별의 도식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 관계에서는 차별하는 쪽은 항상 선행되어 있고, 차별을 당하는 쪽은 선행하는 상대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고발할 수 있는 위치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차별자로서의 일본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재일조선인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은 항상 선행하는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동시대의 재일조선인 주체 구축 둘러싼 ‘제3의 길’ 논쟁을 경유하면서 작품을 살펴보면, 꿈속에서 첫 번째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손에 목이 졸려 죽은 사람이 다름 아닌 여동생 ‘준코(純子)’로 설정되어 있는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달리 말하자면,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가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을 경유하면서밖에 구축되지 못하는 비대칭적인 관계의 결말을 재일조선인 스스로의 패배로 그리고 있고, 이것은 다름 아닌 동시대의 ‘제3의 길’ 논쟁에서 김석범이 강조한 재일조선인은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일치한다.

### 3. 사건의 재구성과 일본문학의 타자 표상

다음으로, 시간적으로는 김석범의 『사제 없는 제사』보다 무려 10여 년 전에 발표된 시라사카 요시오의 『타인의 피』에서는 재일조선인의 범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시나리오의 도입부에서는 ‘이승만 타도의 학생 데모. 현수막. 발표. 유희. 군사정권 수립. 등등, 한국 격동의 움직임을 전하는 뉴스에 강하게 못을 박듯이 타이틀’이라고 시작하고 있듯이, 동 작품은 독자들에게 재일조선인 문제의 기저에 한국의 정치 상황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12) 金石範(1981) 『「在日」の思想』 筑摩書房, p.89.

먼저, 작품이 발표된 1960년 전후의 한일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당시 북한송환사업(1959년 12월 14일, 첫 귀국선 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일본 정부는 일단 귀국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일회담 재개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재개의 첫 작업으로서 한일 억류자를 상호송환하기로 결정하고, 1960년 3월 31일에 제1차 송환이 실현된다. 그리고 억류자 상호송환 문제가 해결되면서 같은 해 4월 15일에는 제4차 한일회담이 재개되지만, 이른바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일어난 4·19혁명과 제1공화국 붕괴로 중단된다. 그리고 1960년 7월 29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같은 해 10월 25일에 5차 한일회담이 열리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또 다시 유산된다. 이후, 1961년 10월 20일에 6차 한일회담이 재개되었고,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이 도쿄에서 비밀회담을 가지면서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산청구권 문제와 이승만라인,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문제에서 타협점을 이끌어 낸다.

하지만,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이 굴욕외교라는 여론이 일어나 1964년 3월 24일에 학생시위를 비롯한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격화되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6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일회담은 잠기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12월에 제7차 회담은 속개된다. 이후, 1965년 6월 22일에 기본조약과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면서, 어업협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승만라인이 철폐되고 일본 측의 주장대로 양국 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나리오 『타인의 피』는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 및 한일 어업문제(이승만라인), 그리고 한일회담과 4·19혁명 및 군사 쿠데타 등 시시각각 그 의미가 변화하는 유동적인 한일 관계라고 하는 동시대의 정세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라사카 요시오가 자작 시나리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진우 사건을 다룬 작품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독자론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나리오 속 설정은 끊임없이 조선과 조선인을 의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 사건과 작품 속 설정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진

우는 주간에 다니는 여고생을 강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작품 속 임정일(林正一, 본명은 林正明)은 공장에 다니는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설정이 바뀌어 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살해 및 유기한 곳이 학교 옥상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마을 변두리에 패전 후 남겨진 방공호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범행이 발각되는 과정을 보면, 실제 사건에서는 이진우 스스로 피해자의 집과 경찰서에 피해자의 유품을 보내거나,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범행을 자랑하는 과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히지만, 작품 속에서는 범행 이후에 방공호에서 달아나는 모습을 주변 농부에게 목격된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그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실제 사건과 작품 속 설정의 차이를 보면, 작가 시라사카 요시오가 동 시나리오와 이진우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는 발언 그 자체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하지만, 독자론적 입장에서 작품을 보면, 소년의 이름이 재일조선인 이름이라는 사실과 주간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18살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유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 등, 동시대의 독자라면 위와 같은 몇몇 키워드만으로도 쉽게 이진우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 임정일은 결정적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때, 후미에는 저의 국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적을 밝힌 순간, 후미에는 분명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듯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죽인 것은 아닙니다. 뭐랄까, 그 때 저는 무아몽중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지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이 끓어올라와…… 분노와 같은…… 강한 슬픔과 같은 힘이 넘쳐와…… 분명 저는 미쳐 있었습니다. (중략)정신을 차리고 보니 후미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제정신이 돌아오자, 저는 여느 때의 자신과는 어딘지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가 생겨난 듯했습니다. 항상 가지는 주눅든 마음들이 날아간 듯 상쾌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는 싸움도 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웃으며)저는 그 날의 일은 정말이지 저 자신이 스스로를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155-156쪽)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 사건에서 이진우는 스스로의 범행에 대해서 마치 ‘꿈’과 같았다고 진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 없는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품 속 주인공 임정일이 법정에서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에도 본인은 ‘무아몽중’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장면은 실제 사건과 강하게 접점을 보인다. 특히, 이진우는 1958년 9월 1일에 체포되어 1959년 2월 27일에 1심에서 사형 선고, 1961년 8월 17일에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되어 전후 20명 째의 소년 사형수로 확정된다. 이후, 1962년 8월에 사형 집행을 위해 도쿄구치소에서 미야기형무소 센다이구치소로 이송되어 같은 해 11월 26일에 미야기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다. 따라서, 동 시나리오가 발표된 1962년 4월에는 이진우의 사형 집행이 확정되어 미야기형무소로 이송된다는 발표와 시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시대의 많은 독자들에게는 실제 사건과 작품 속 설정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르다고 해도, 동 시나리오 자체가 어떠한 사건을 모티프로 집필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타인의 피』에서는 김석범의 『사제 없는 제사』와는 달리, 재일조선인 임정일의 주체 구축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작품의 방향성은 오히려 재일조선인 문제에 양심적으로 도와주는 일본인,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의 거주 경험 및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식민 유재로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문제를 클로즈업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임정일의 담임 사와무라(沢村)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 기타가와 게이코(北川景子)는 일명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의 모임’이라는 <동료모임(仲間の会)>을 결성하고, 임정일의 가입 및 재일조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사와무라 「오늘은 교과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사와무라의 눈길은 정일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는다.

정일, 고개를 숙인다. 민폐다.

사와무라 「그건 다름 아닌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야. 미국의 흑인과 같은 차별이 일본에도 있어.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그것이야. 같은 인간인데 왜 경멸하고 모욕하지 않으면 안 될까? 우리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는데 말이

지」

나카니시 「(엥똥하게)하지만 그 녀석들은 냄새가 지독하다구요」

학생들, 일제히 웃는다.

나카니시 「게다가 신문에 나오는 살인자와 도둑은 대부분 그 녀석들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사와무라 「그건 모든 게 가난이 원인이야. 그리고 잘 들어봐, 너희들. 그들을 굶주리게 한 책임은 우리들 일본인에게 있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그들을 굶주리게 했고, 그들을 차별한 거야. 알겠어? 잘 들어 모두들, 여기가 중요한 사실이야」

사와무라, 계속해서 설명한다.

정일,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있다. 정일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사와무라의 빠끔빠끔 움직이는 입술이 보일 뿐이다. 끝이 없는 고독 속에 침식되어 가는 정일.(136쪽)

위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와무라 선생님의 조선 식민지 지배 및 제일 조선인 차별 문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임정일 본인은 그와 같은 역사 교육에 열정적인 선생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민폐로 인식하며 끝없는 ‘고독’ 속으로 침식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임정일의 반응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임정일의 집을 방문한 사와무라 선생님은 제철소에서 다리를 다쳐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는 임정일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선 민족이 서로 죽이는 무기를 같은 한국인에게 만들게 한 거야. 게다가 그 때문에 정일 군의 아버지는 폐인이 된 것이고. (중략)나는 정일 군의 집에서 슬픔과 분노에 가슴이 뜨거워졌단다. 조선 민족에 대한 과거의 과오를 일본인은 질리지 않게 반복하고 있으니 말아야”라고 아버지가 폐인이 된 이유를 조선전쟁에 따른 특수와 그에 따른 ‘희생’이라고 말한다. 물론 사와무라 선생님은 임정일의 아버지가 제철소에서 머리와 다리를 다쳤다는 정보만으로 조선전쟁에 따른 특수와 식민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약적일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이에 대한 임정일의 반응은 ‘귀찮은 듯 고개를 숙이’며 ‘사와무라의 잘도 움직이는 입 언저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임정일은 범행 이후에도, 사와무라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면, 나는 그 선생님이

싫어서 수업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 왜냐면, 그 선생님은 사람 얼굴만 보면 자꾸 한국 이야기를 하니깐 말이야. (중략)나는 누가 걱정을 하거나 동정하는 거 싫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일조선인 임정일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식민 유재로 남아 있는 재일조선인에게 양심적이고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일본인을 왜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양심적인 선의의 일본인은 앞서 살펴본 김석범의 『사제 없는 제사』에도 등장한다는 점인데, 재조일본인 평론가 가와무라 지로(川村二郎)는 이와 같은 설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자면, 재일조선인 문학을 읽을 때, 작가가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그들의 위치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소설 속에는 가난한 조선인 가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본인 여성 민생 위원이 등장한다. 물론 선의의 인간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녀가 불쌍하고 가여운 조선인에게 동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이 「모든 추악한 것, 부도덕한 것, 가난한 자, 약한 자, 저주받은 자의 집합」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전전에 조선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은 이러한 미묘한 사대 앞에서는 정말이지 곤혹스러울 따름이다.<sup>13)</sup>

가와무라 지로가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는 본인과 같이 전전에는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선의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의’가 재일조선인 주인공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으로부터 증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선의’에 의한 타자 인식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본인과의 비대칭성을 내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설정은 무려 10여 년 전에 발표된 『타인의 피』에서도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물론, 주의할 점은 동 작품에서는 일본인의 포지션에 방점을 찍고 재일조선인의 주체 구축 뿐 아니라 일본인의 타자 인식 및 패전 후 해체되었던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재구축되는 프로세스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13) 川村二郎(1981.2) 「81文芸時評 (二)」 『文芸』 20卷2号, 筑摩書房新社, p.26.

#### 4. 구명운동과 주체 구축의 (불)가능성

다음으로, 사건 발생 직후에 일본인의 ‘선의’로 결성된 이진우 구명운동을 살펴보고, 작품 속에서도 재일조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와무라 선생님님을 비롯한 <동료모임>의 구명운동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임정일이 체포된 직후, 사와무라 선생님은 <동료모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구명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와무라 「범인이 그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솔직히 쇼크였어. 절망적이었고, 또한 담임교사로서 깊이 반성 역시 했어. 그러나 사건의 뿌리는 깊어. 과거 일본과 조선의 불행한 역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해. 동시에 이것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구.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선 중요해. 그치 않아? (중략)그는 섹스보다 애정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한 때 춘부와의 애정이라고밖에 표현하기 어려운 교섭 속에서 유일한 희망을 찾아낸 정일 군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런 의문은 들지 않을 터. 그치 않아?」(147-148 쪽)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와무라 선생님은 임정일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역사적 문맥 속에서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식은 <동료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게이코 역시 동일하다. 예를 들면, <동료모임>의 멤버 요코와 임정일의 집에 찾아간 게이코는 마침 재판의 변호를 자청한 한국인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게이코는 같은 민족 출신의 변호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며, 변호 비용 등은 <동료모임>에서도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왜 이런 운동을 하냐고 묻는 한국인 변호사에게 게이코는 ‘동료로서’라고 말하며, “우리들은 조금 더 빨리 정일 씨에게 따뜻한 애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한국인 변호사는 “당신들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는데, 이에 대해 게이코는 “적어도 정일 씨의 경우는 그랬어요”라고 대답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일본인의 ‘선의’로 구성된 <동료모임>과 구명운동은 이진우가 체포된 이후에 그를 구출하기 위해 결성된 일본인에 의한 <李소년을 살리는 모임(李少年をたすける会)>의 구명운동을 연상케 한다. 동 모임은 앞서 소개한 평론가 가와무라 지로와 동일하게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재조일본인 하타다 다카시(旗田巍)가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하타다 다카시는 1908년에 조선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닌 재조일본인이며, 전후에는 조선사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전후 일본에서 조선사연구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고, 1994년에는 사망 후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인으로는 세 번째로 문화훈장 보관상을 수상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타다 다카시가 구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진우가 체포되고 약 1년 3개월이 지난 1960년 1월이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대법원 판결 전에 감량을 위한 <李소년을 살리는 모임>을 조직하고, 9월에는 작가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기노시타 준지(木下順二), 다카기 다케오(高木健夫),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 등이 발기인이 되어, 「李소년을 살리기 위한 부탁」이라는 호소문을 제작하고 서명 및 구명운동을 시작한다. 하타다 다카시는 주임 변호사인 고바야시 나오토(小林直人)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진우의 범행을 「재일조선인 운명의 하나의 축도」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진우 군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으며 일본어밖에 못하는 소년이었지만, 조선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본인은 스스로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싫어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실로 불행한 일입니다. 조선인으로서의 자각,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조선인에 대해 차별적인 공기에 노출될 때, 정상적인 성장은 필시 곤란하고 빼뚫어진 인간이 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환경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또한 일찍이 동포라고 부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존재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14)</sup>

위의 인용문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미디어 역시, 하타다 다카시의 감형 운동은 「민족적 편견에 노출되어 있는 조선인에 대한 동정」<sup>15)</sup>이라고 보도하고

14) 朴寿南編(1979) 「旗田巍より小林主任弁護士への手紙」 『李珍宇全書簡集』 新人物往来社, p.105.

15) 旗田巍(1960.2.14) 「少年死刑囚への疑問」 『週刊読売』 7号, 読売新聞社, p.9.

있듯이, 하타다 다카시는 범행의 원인을 차별과 피차별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고, 일본 사회 속의 조선인 차별이 만들어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은 『타인의 피』 속에 등장하는 사와무라 선생님의 타자 인식 및 구명운동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하타다 다카시가 전전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일본인이라는 점, 달리 말하자면 일본인이면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본인이 아닌 이른바 ‘조선계 일본인’, 즉 재조일본인이라는 사실이다.

고길희는 이진우의 감형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하타다 다카시에게는 재조일본인이라고 하는 시좌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위의 편지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타다가 자신을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와 「일찍이 동포하고 부른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두 번에 걸쳐 규정한 표현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중략)하타다는 왜 이진우를 「조선인」이라고 부르면서 반성해야 할 자신에 대해서는 애들러서 두 번에 걸쳐 표현했을까. 이진우를 「조선인」으로 규정한다면 「반성」해야 할 자신을 「일본인으로서」 「일찍이 식민자였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라고 써야 하며, 반대로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진우에 대해서도 「조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하타다는 자신이 「일본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주저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진우 소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고길희는 재조일본인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내면화한 하타다 다카시라면 조선계 일본인으로서의 이진우의 이중성을 충분히 언어화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시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식민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속죄 의식에 너무나도 얽매인 나머지, 이진우를 ‘조선인’으로밖에 언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타다 다카시의 ‘같은 사회’ ‘일찍이 동포’라고 하는 재일

16) 朴寿南編(1979) 「旗田巍より小林主任弁護士への手紙」 『李珍宇全書簡集』 新人物往来社, p.105.

조선인과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타자 인식 및 재조일본인의 시좌 결여를 경유하면서 작품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동료모임>의 친구들은 하나 둘 탈퇴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증인을 자처하면서 재판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이코의 모습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이코는 본인이 이렇게까지 재일조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비밀스럽게)난 말이지, 조선에 있었던 적이 있어. (중략) 태어나자마자 바로 전쟁이 끝나서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전혀 기억나는 게 없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조선 경찰서에 있었어. 그래서 난 그런 의미에서도 네 편이야”라고 말하고 있듯이,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점과 아버지가 경찰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네 편’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재일조선인 인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인을 ‘같은 사회’일찍이 동포’라고 말하는 하타다 다카시의 발화 포지션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동 작품이 김석범의 『사제 없는 제사』의 일본인 설정과 다른 점은 이와 같은 캐릭터 설정을 통해서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구축의 어려움만을 그리지 않고, 일본인의 패전 이후에 해체되었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재구축 프로세스와 연관 지으며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재판 초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임정일을 돕겠다고 했던 사와무라 선생님은 ‘좌익’적 언행을 문제 삼는 학부모와 교장에게 회유되어, 결국 구명운동을 포기하고 재판에서 이탈한다. 그 뿐만 아니라, 사와무라 선생님은 게이코에게도 “너의 아버지는 커다란 힘에 조정된 의지가 없는 톱니바퀴였어. 그러한 아버지를 무책임하게 살해한 사람들은 증오하는 것이 너에게는 당연한 거야. (중략)정일 군에게는 딱하지만..... 역시 너에게는 타인이며..... 부모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152쪽)라고 하면서, 제국과 개인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국가 권력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는 희생양으로서의 개인의 무력함을 강조하면서 게이코를 설득한다. 하지만, 게이코는 교장의 회유에 타협한 사와무라 선생님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오히려 본인은 끝까지 임정일을 돕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물론, 재일조선인 변호사 역시 게이코에게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초월 불가능한 거리감을 이야기하며 너무 어머니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말고 그만 학교로 돌아가라고 타이른다. 하지만, 게이코는 학교 따위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본인의 아버지는 식민지 조선에서 패전 당일 밤에 동네 조선 사람들이 집에

물려와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본인은 재일조선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본인은 다른 일본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입장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도울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일조선인 변호사는 어린 게이코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은 조선에서 일본인 병사에게 아내와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살해당했다고 전한다. 결국, 게이코는 말을 잃고 처참한 심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뛰쳐나간다. 즉, 게이코는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사를 강조하면서 조선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같은 ‘편’“일찍이 동포”로 동일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제국 일본의 재일조선인 변호사 가족에 대한 폭력은 이와 같은 안일한 동일화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타인의 피』에서는 일본인의 안일한 상호 이해 및 동일화 속에 은폐되어 있는 폭력성을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일조선인 역시 일본인과의 차별/피차별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는 주체 구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동 작품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변호사에게 쓴 편지에서 임정일은 더 이상 공소할 필요는 없고, 이제 본인을 잊어 달라고 말한다. 처음에 독방에 갇혔을 때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었지만 지금은 매우 평온하며, 이렇게 혼자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말한다. 물론, 정말로 독방 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으며, 이것은 “그보다 지금까지 생활해 온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저를 부디 이대로 평온한 상태로 놔둬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듯이, 일본 사회로의 복귀 그 자체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재일조선인 임정일은 끊임없이 정체성의 혼란만을 겪고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정일은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살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질문을 받고, “(밝게) 네. 500엔으로 서로 이해한 사이니까요”라고 대답한다. 이에 대해, 검사는 여성은 범행 전에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유도심문에도 임정일은 후미에는 본인을 사랑했고, 국적을 털어놓자 단지 조금 놀란 것 같았고, 왜 죽였는지는 “그 때는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주의할 점은 폭행이 목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던 임정일은 재일조선인인 변호사로부터 후미에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500엔을 건네는 것에 집착했느냐는 질문에,

“사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후미에는 저에게 단 한 사람의 말 상대였습니다. (중략)돈을 건네지 않으면 처음으로 생긴 말 상대가 또 다시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155쪽)라고 대답하고 있듯이, 임정일은 후미에와 금전적 거래에 의한 대칭적인 관계 속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게 그려지고 있다. 다만, 재일조선인이 전후 일본의 법적 사회적 제도 측면에서 일본인과 대칭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작품은 임정일의 결말을 결국 누구와도 관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독방’ 속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5. 나가며

본고에서는 1958년에 발생한 이진우 사건(고마츠가와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모델로 한 시나리오 『타인의 피』를 중심으로, 일본인 작가에 의한 재일조선인의 타자 표상에 대해서 고찰했다. 또한, 동 사건을 모델로 한 김석범의 『사제 없는 제사』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1960년대 전후의 일본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재구축과 재일조선인의 주체 구축이 상호교섭적으로 가공되어 가는 프로세스를 탐색했다.

특히, 시나리오 『타인의 피』는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 및 한일 어업문제(이승만라인), 그리고 한일회담과 4·19혁명 및 군사 쿠데타 등 시시각각 그 의미가 변화하는 유동적인 한일 관계라고 하는 동시대의 정세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무라 고이치(野村浩一)는 한국의 군사 정권과 일미 신안보조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6월 10일(일본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0시) 일본이 미국의 한국 원조를 대신 맡는다는 것, 그리고 군사정권의 지원과 일본 독점 자본의 한국 진출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일본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이것은 또한 곧바로 군사적 측면에서는 NEATO의 구상과도 연동되는 길이기도 하다. (중략)하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일단 이러한 직접적인 정치의 과정을 떠나 다시 한 번, 기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1년 동안 한국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는 민족 자립의 요구였다. 그러한 움직임은 가장 야만적인 형태로 탄압한 것

이 군사정권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권을 원조하려고 하는 정책, 이른바 신안보체제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들은 그러한 정책을 단순히 상대방이 군사정권인지 아닌지의 차원의 문제에서 인식하면 안 될 것이다.<sup>17)</sup>

노무라 고이치는 미국의 극동 정책 속에서 일본은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원조를 해야 하는데, 당시 한국의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어떠한 정치 형태를 선택한다 해도 ‘민족 자립’의 동향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진정한 아시아와의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완전한 자립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이러한 ‘민족 자립’에 입각한 요구에 대한 원조는 일본 스스로의 자립성과도 불가결한 조건이며, 아시아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신안보 체제의 논리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군사 쿠데타 이후로 구분되는 이승만라인 제3기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된 한미일의 정치적 유착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표면적으로는 일본 어민의 나포 등에 대한 불법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따른 한미일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유착 관계를 역설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동시대의 한미일 유착 및 한국의 ‘민족 자립’의 어려움이라는 문맥 속에서 『타인의 피』를 분석해 보면, 김석범의 『사제 없는 제사』에서는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을 경유하면서밖에 구축되지 않는 비대칭적인 관계의 결말을 재일조선인 스스로의 패배로 그리고 있는 반면, 『타인의 피』에서는 오히려 일본인의 일방적인 ‘선의’에 의한 구명운동의 결말을 일본인 스스로의 패배로 그리고 있다.

다만, 『타인의 피』에서는 재일조선인 주인공은 일본 여성과의 금전적인 관계 속에서 정체성의 안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일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재일

17) 野村浩一(1961.9) 「二つの朝鮮と日本人—東アジアの緊張に直面して—」 『世界』 189号, 岩波書店, p.44. 일본의 신안보조약은 1951년에 체결된 안보조약에서 미국이 극동 전략상 일본을 기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인 성격은 변함이 없지만, 미국과 일본은 극동으로 출격하는 재일 미군기지가 공격 받을 경우에는 함께 전쟁을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자위대가 미국의 군사전략 속에 편입되어 일본이 알지 못하는 미국의 전쟁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미군 배치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한 번도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조선인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대칭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관계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의 주체를 구축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李珍宇·朴儔南(1962.10) 「獄窓に祖国の瞳を見つめて」 『婦人口論』 10号, 婦人公論新社, p.174.  
李恢成(1981) 『青春と祖国』 筑摩書房, p.50.  
入江隆則(1981) 「文芸時評」 『すばる』 3卷2号, 集英社, p.327.  
小野悌次郎(1998) 『存在の原基 金石範文学』 新幹社, p.99.  
川村二郎(1981) 「81文芸時評 (二)」 『文芸』 20卷2号, 筑摩書房新社, p.26.  
金石範(2005) 「祭司なき祭り」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金石範(1981) 『「在日」の思想』 筑摩書房, p.89.  
金時鐘(1980) 「座談会・第三の道をめぐって」 『朝鮮人』 4号, 朝鮮人社, p.30.  
坂中英徳(1977) 「今後の出入国管理行政のあり方」 『外国人登録』 223号, 外国人登録事務協議会  
全国連合会, p.25.  
白坂依志夫(1962) 「他人の血」 『シナリオ』 18卷4号, 日本作家シナリオ協会, pp.131-158.  
立石伯(1981) 「書評 事実と虚構」 『群像』 9号, 講談社, p.287.  
野村浩一(1961) 「二つの朝鮮と日本人—東アジアの緊張に直面して—」 『世界』 189号, 岩波書店,  
p.44.  
朴一(1992) 「『在日論』 論争の成果と課題—在日朝鮮人二・三世の生き方をめぐって」 『ほるもん  
文化』 3号, 新幹社, p.94.  
朴寿南編(1979) 「旗田巍より小林主任弁護士への手紙」 『李珍宇全書簡集』 新人物往来社, p.105.  
旗田巍(1960) 「少年死刑囚への疑問」 『週刊読売』 7号, 読売新聞社, p.9.

논문 투고 일자 : 2019. 04. 14.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

 <要旨>
 

---

 戦後の高度成長と在日朝鮮人の主体構築の加工性  
 —白坂依志夫の『他人の血』を中心に—

林相珉

本稿では1958年に起きた李珍宇事件（小松川女子高生殺人事件）をモデルにしたシナリオ『他人の血』を中心に、日本人作家による在日朝鮮人の他者表象について考察した。特に、同事件をモデルにしている金石範の『祭司なき祭り』と比較しながら、1960年代前後の日本文壇で在日朝鮮人の犯罪かどのように語られているかを分析した。

その結果、金石範の『祭司なき祭り』では加害者としての日本人を経由しながら構築される非対称的な関係の結末を在日朝鮮人自らの敗北として描いている反面、『他人の血』の中ではむしろ日本人の一方的な「善意」による救命運動の結末を日本人自らの敗北として描いている。

但し、『他人の血』では在日朝鮮人の主人公は日本人女性との金銭的な関係性の中でアイデンティティの混乱を回避したりするものの、日本社会の中で生きていくしかない在日朝鮮人の現実的な側面からすると、このような対称的な関係は不可能に近く、そういう意味でも無関係という関係性の中で自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構築する難しさを描いている作品とも言える。

本稿では1959年から始まった北朝鮮帰国事業及び日韓の漁業問題、そして日韓会談と軍事クーデターなど、時々刻々その意味が変化する戦後冷戦という時代に流動的に変化する日韓関係の中で、日本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在日朝鮮人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が相互的に交差し加工されていくプロセスを明らかにした。

 Post-war high growth and machinability for building main agents of Japanese Korean  
 —Focusing on 『Blood of Others』 by Yoshio Shirasaka—

Lim, Sang-Min

This paper studied symbols of others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by a Japanese writer. The book 『Blood of Others』, a story based on the Jinwu Lee Affair (a murder case of a female Japanese high school student) in 1958, was considered. This was compared to 『Memorial services without priests』 by Seokbeom Kim, which was based on the same affair. How crime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described in the post-war literary world in the 1960s was analyzed.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Regarding 『Memorial services without priests』 by Kim, the end of asymmetric relationships which were not constructed outside via Japanese people as the attackers were described as defeats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On the contrary, in 『Blood of Others』, the end of Japanes unilateral “good will” in saving lives was described as a Japanes defeat. This paper explored the process by which Japanes national identity and the agenc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commutatively process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changed fluidly in the Cold War era while Japan’s national identity was rebuilt and the agenc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constructed.